체포… 사살… 피의 다마스커스

시리아 반정부 시위 사망자 350명 넘어

국제사법재판소 "알-아사드 대통령 안보리 회부해야"

시리아에서 주말에도 이어진 대규모 시위에서 정부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24일에만 최소 9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시리아 유혈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350명을 넘어섰다고 이날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유혈진압과 관련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보도했다.

시리아 인권단체 사와시아는 자블레에서만 당국의 유혈진압으로 이날 최소 9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시위 희생자들은 주로 반정부 시위대의 거점인 남부도시 다라와 다마스커스 등에서 발생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전날 공안군의 발포로 숨진 시위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로써 시위 중 숨진 사망자는 첫 시위가 발발한 지 5주 만에 350명을 넘어서게 됐다.

인권단체들은 또 다마스쿠스, 홈스, 다라와 시리아내 주요 도시들에서 반정부 인사 수십명이 이날 보안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시리아 인권감시단'은 AFP통신에서 알-아사드 대통령이 개혁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3일에도 시리아 북부 가카, 알레포 등에서 18명이 체포됐으며 "다른 도시들에서도 수십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한 인권단체 대표인 암마르 쿠라비는 이날 AP통신을 통해 "수도 다마스커스와 홈스 지역 등지에서 수십 명이 체포됐다"며 "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된 것이 아니라 납치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쿠라비는 이날 체포된 인사들 대부분이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리아 내 지식인과 언론인 등 100여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시리아 당국의 유혈진압을 규탄하면서 국영 언론사 직원들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날 당국의 체포작전은 지난 22~23일 전국적으로 시위현장에서 당국의 발포로 최소 120명이 숨진 이후 이뤄진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시리아 당국의 유혈 진압 행위와 관련, 유엔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발포를 포함해 이번 공격을 지시·이행한 이들은 형사상 소추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여행제한'지역 상향

정부는 25일 반정부 시위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시리아 전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시리아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귀국하라고 권고한다"고 말했다. 시리아에는 우리 국민 16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토, 카다피 관저 폭격

3개동 파괴·45명 부상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이 25일 새벽(이하 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관저 건물을 폭격했다.

이에 대해 리비아 정부 대변인은 카다피의 목숨을 노린 공습이었다고 강력 비난했다.

AP와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리비아 대변인은 공습에 파괴된 건물 3개동은 카다피가 각료회의나 각종 회의를 주재할 때 사용해온 사무용 건물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카다피 관저에 대한 공습으로 중상을 입은 1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4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공습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목격자들은 이날 새벽 0시10분께 트리폴리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카다피의 관저가 위치한 바브 알-아지지야에서도 연기기둥이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나토군은 지난 22일 밤에도 카다피 관저 인근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바 있다.

한편 영국 데일리 미러는 카다피가 연합군의 공습을 피해 민간인들이 대거 밀집한 건물들을 골라 숨어 지내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러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 카다피가 "이웃에 있는 무고한 어른들과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여수박람회 참여해 달라"

이대통령, 호주 총리에

이명박 대통령과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25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본격적인 타결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올해 내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방한 중인 길라드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 상에서의 북한의 공약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규탄하고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핵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주의 광대역통신망(NBN)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희망했고 내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호주 정부가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연합뉴스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방북할 예정인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왼쪽부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 4명의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들이 25일 베이징 래플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북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북길 오르는 '디 엘더스'… 김정일·정은 만날까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세계 평화 정착 표방
만델라·지미 카터 등 전직 지도자들 모임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방북길에 오르는 디 엘더스(The Elders)는 세계 평화 정착과 인권 증진을 설립 목적으로 표방하는 전직 지도자들의 모임이다.

디 엘더스는 2007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89회 생일 때 공식 출범했다. 만델라는 이 모임의 설립을 주도했지만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로 지금은 명예회원으로 남아 실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엘더스의 정회원은 26~28일 북한을 방문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을 비롯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페르난도 카르도소 전 브라질 대통령, 데스몬드 투투 남아프리카공화국 명예대주교 등 10명이다.

이 밖에 만델라 전 대통령과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는 명예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엘더스 회원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한반도 문제와도 인연이 깊은 카터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15일부터 3박4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끌어낸 뒤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한 편의 '평화 드라마'를 연출한 바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가 억류돼 있을 때도 두 번째 방북길에 올라 곰즈를 전세기에 태워 미국으로 귀환시켰다.

이 밖에도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은 코소보 분쟁과 인도네시아 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2008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며,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재직중 최초로 티베트를 방문한 적이 있다.

디 엘더스는 한반도 평화 문제 외에도 미얀마와 스리랑카의 인권 증진, 수단 및 중동의 평화 정착, 짐바브웨의 민주주의 촉진, 양성 평등 등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방북을 하루 앞둔 디 엘더스는 25일 오전 베이징(北京) 래플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북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북한의 초청을 받아 가는 것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만나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선왕실 의궤 이르면 내달 돌아올 것"

환수위 이상근 사무총장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25일 "일본 궁내청에 소장돼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1205책이 이르면 다음 달 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의 이상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갖고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이 5월 15일 방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0일 일본을 방문하는데 (도서 반환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외교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상징적으로 조선왕실의궤 중 한 부 정도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늦어도 6월 안에 외교적 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10일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 도서 1205책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일 양국 정상은 같은 해 11월 한일도서협정을 체결했다/연합뉴스

양대노총 '국정 기조 변화' 공동투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현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거듭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4·27 재보선에서 친근로자 정당을 지지하는 등 강력한 공동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말 이 위원장 당선 이후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간 현 정권의 노동정책 탓에 노사 관계가 완전히 실종됐고 노동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모두 비전문가로 채워져 노동문제가 1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 노조를 말살해 노동 유연화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노동악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피해는 1600만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